

영화 뺨치는 용병반란...하루 만에 1천km 진격서 철수까지

러시아 남부 도시 잇따라 접수...모스크바 턱밑까지 진격 푸틴 "등에 칼 꽂혀" 강경대응 경고...벨라루스 중재 타협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향해 거침없이 진격하던 용병기습 바그너 그룹의 무장 반란이 '일일천하'로 마무리됐다. 25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바그너 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 양측이 각각 한발씩 물러서는 극적 타협이 이뤄지면서다.

◇'무장 반란' 체포령...프리고진, 러시아 국경 넘어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본격 감지된 건 지난 23일 프리고진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을 공개 비난했을 때부터다.

프리고진은 바그너 그룹의 야전 캠프에 미사일 공격을 지시한 쇼이구 장관을 응징하기 위해 움직일 것이며 이는 쿠데타가 아니라 '정의의 행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서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에 밀려 후퇴 중이라고 밝히며, 러시아군이 이기고 있다는 푸틴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하기도 했다.

러시아 당국은 프리고진의 발언이 선을 넘었다고 보고 무장 반란 혐의에 관한 수사 계획을 발표하는 한편 체포 명령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바그너 그룹은 우크라이나에서 국경을 넘어 러시아로 진격했고 러시아 남부 로스토프주의 국경 검문소를 순식간에 통과했다.

◇'로스토프·보로네시 장악'...푸틴 "등에 칼 꽂혀"
프리고진은 25일 오전 로스토프주의 주도 로스토프나도누의 군 사령부를 접수하고 비행장 등 모든 군사기지를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과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이 오지 않으면 로스토프나도누를 봉쇄하고 모스크바로 진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그너 그룹은 이후 북진해서 모스크바에서 남쪽으로 300km 떨어진 보로네시주의 주도 보로네시까지 접수했다.

러시아는 이에 맞서 모스크바와 보로네시에 대테러 작전체제를 발령했고, 거리에 장갑차가 등장했다.



무장 반란을 지휘한 러시아 용병기습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점령 중이던 러시아 남부 도시 로스토프나도누에서 박수를 받으며 철수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푸틴 대통령은 긴급 TV 대국민 연설에서 "우리는 등에 칼이 꽂히는 상황을 목격하고 있다. 반역에 직면했다"며 가혹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루 만에 1천km 진격 시도...모스크바 초비상

프리고진은 푸틴 대통령의 경고에도 "아무도 투항하지 않을 것"이라며 진격을 이어갔다.

바그너 그룹이 하루 만에 로스토프나도누에서 1천km 거리에 달하는 모스크바로 빠르게 접근해오자 모스크바에서

는 긴장이 고조됐다.

붉은 광장과 시내 주요 박물관이 폐쇄됐으며, 시 당국은 도로 폐쇄 가능성에 따라 주민들의 통행 자제를 촉구했다.

모스크바 남부 외곽 지역에는 장갑차와 병력이 주둔한 검문소가 설치됐고,

모스크바로 향하는 일부 도로에서는 바그너 그룹의 진격을 막기 위해 포크레인 등 중장비가 도로를 파헤쳐 끊는 모습도 포착됐다.

◇모스크바 턱밑서 극적 타협...바그너 그룹 철수
주요 7개국(G7)이 무장 반란 사태에 대한 논의에 나서는 등 국제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사이 벨라루스 대통령실에서 극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바그너 그룹이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협상해 러시아에서의 병력 이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후 프리고진은 유혈사태를 피하기 위해 모스크바로 향하던 병력에 철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프리고진에 대한 형사입건이 취소될 것이며 프리고진이 벨라루스로 떠날 것이라고 전했다.

바그너 그룹 병사들도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3일 시작된 프리고진의 무장 반란은 24일 밤늦게 그가 로스토프나도누를 떠나면서 끝을 맺었다. /연합뉴스

홍콩인 80%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반대"

홍콩노동단체 설문서 63% "일식 식품 구매·여행 줄일 것"

홍콩인의 약 80%가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전의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방류 계획에 반대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2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최대 노동단체 홍콩공회연합회(FTU)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FTU는 이달 홍콩 성인 6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80% 이상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우려를 표했고, 약 80%가 방류 계획에 반대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이유로 응답자의 63%는 일본산 식품의 구매를 줄이겠다고 답했고 59%는 일본 방문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응답자의 40% 이상은 홍콩 정부의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

선량 검역 강화 계획을 지지했고, 약 25%는 후쿠시마와 인근 지역의 식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 20%는 단기적으로 일본산 모든 수산물에 대한 전면 수입 금지를 촉구했다. 또 응답자의 60% 이상은 일본 정부의 식품 안전성 검사에, 약 50%는 수입 식품에 대한 홍콩 정부의 방사선 측정 과정에 확신이 없다고 각각 답했다.

FTU는 "설문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일본산 식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정당하며 여론의 지지를 받는다"면서 홍콩 정부가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홍콩 당국이 검역에 대한 대중의 신뢰 유지와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선 검사 결과를 매일 발표할 것을 제안했다.

홍콩 당국 자료에 따르면 현지 전체

식품 공급에서 일본 수입품은 약 2%를 차지한다. 또 홍콩 전체 해산물 소비의 6.7%가 일본산이다.

앞서 홍콩 당국은 지난 11일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체진안 홍콩 환경부 장관은 지난 8일에

는 친중매체 대공보 기고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될 경우 일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즉시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후쿠시마와 그 인근 지역인 지바, 군마, 이바라키, 도치기 등 일본 5개 현 농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했다. /연합뉴스

중 원환 대지진 때 극적 구조 '경례 아기' 대입 고득점 화제

9만명 가까운 희생자와 37만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중국 원환 대지진 당시 극적 구조됐던 '경례 아기'가 올해 대학 입학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화제가 되고 있다고 중국중앙TV(CCTV)가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쓰촨 출신 랑징은 올해 중국의 대학 입학시험인 가오카오(高考)에서 637점을 받았다.

이는 올해 가오카오에 응시한 80만명

의 쓰촨성 수험생 가운데 상위 30위 이내에 드는 높은 점수다.

입학 원서도 내기 전에 중국 최고 명문대인 베이징대와 인민대는 그에게 입학권을 권고하며 러브콜을 보냈다.

랑징은 3살 때였던 2008년 5월 12일 쓰촨성 원환에서 발생한 규모 8.0의 대지진 당시 무너진 유치원의 폐허 속에 갇혀 있다 10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다. /연합뉴스

카약과 나란히 헤엄치는 혹등고래 영상 화제

호주 시드니 해변서 드론 촬영

호주 시드니에서 1인용 카약과 나란히 헤엄치는 혹등고래를 찍은 드론 영상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4일 호주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에 따르면, 시드니의 유명 해변인 본다이 비치에서 거대한 혹등고래가 카약 옆에서 헤엄치는 장면을 공중에서 찍은 드론 영상이 SNS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됐다.

영상에는 혹등고래 한 마리가 1인용 카약의 뒤를 따라 오더니 곧 옆에 바짝 붙어 보조를 맞추듯 해안으로 헤엄치고 있었다.

이 영상은 순식간에 1만명 이상이 '좋아요'를 누르는 등 관심을 끌었다.

사람들은 "고래와 배가 친한 친구처럼 산책하는 것 같다"면서 신기해하는 반응을 보였다.

최근 시드니 해변에는 남극해에서 태평양 쪽으로 북상하는 해양 포유류



카약과 나란히 헤엄치는 혹등고래. 가다수 목격되고 있다. 맥쿼리대학의 바네사 피로타 교수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고래 숫자가 현저하게 늘었다"면서 "남극해에(고래의 먹이인) 크릴새우가 증가했을 수 있다"고 추측했다. /연합뉴스

방수제 · 바닥재 · 혼화제 · 천연 황토 코팅제 건물 보수제 전문 생산업체

아직까지 방수로 고민하십니까? 기술이 필요없습니다.

방수! 바닥! 직접 공사하세요!

적용현장 및 시공범위

옥상, 외벽, 지하실, 공장바닥, 주차장, 흙집, 물탱크, 양어장, 수영장, 화장실 타일, 기와집, 내구성 및 평활성을 요구하는 현장, 기타 방수를 요하는 모든 건축물

생산 품목

[DK-301] 강력접착 도막 방수제 / 드림탄²
 [DK-303] 상도코팅방수제(녹색, 회색)셀프탄
 [DK-305] 무색침투도막방수제 / 드림데칼³
 [DK-307] 균열 보수제 / 다막스
 [DK-306] 수용성 투명 발수제 / 탑코팅
 [DK-308] 천연황토코팅제 / 황토리
 [DK-5000] 광택증진 & 오염방지코팅제 / 오염스톱

특징

- 빗물은 막고 습기는 내보낸다
- 기술이 필요없다
- 숨을 쉬기 때문에 들뜨지 않는다
- 경제적이다
- 무독성 무기질 친환경 방수제다
- 습윤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
- 미끄럼, 방지기능을 한다
- 옥실 및 화장실 타일을 뜯지 않고도 할 수 있다
- 특히 인증 신기술 공법이다
- 소비자가 인정했다

※전화 문의시 방수·바닥재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품 구입시 시외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시중에 검증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케미칼 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업체입니다.

특허청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드림케미칼코리아

DRM CHEMICAL KOREA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chemicalkorea.com